

#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李載榮 · 申鉉俊 · 金善英

#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李載榮 · 申鉉俊 · 金善英

## 국문요약

냉전 해체 이후 진행되어온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때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국제무대의 변두리지역이 아니며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아시아국가 가운데서도 특히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시장개척지 혹은 자원공급지로서 한국의 유망한 협력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對 유라시아 전략을 수립함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장기간 집권해오고 있는 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스타일로 인해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국가이며, 사회 각 부문은 여전히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 최근 서방국가들과 NGO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비민주성을 비난하면서, 경제원조의 선행조건으로 정치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서방의 압력에 의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다당제 도입 등 일부 형식적인 정치개혁조치를 펼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정치민주화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의 권력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최근 구소련국가들에서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있는 시민혁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소연방 해체 이후 다른 독립국가연합(CIS)국가들이 비교적 급진적인 시장경제 체제개혁을 추진해온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시장경제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에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지는 않았지만, 이후 시장경제 체제개혁의 부진, 지속적인 정

부의 과도한 경제개입 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은 오히려 둔화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사유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확대하고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입을 줄여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CIS 국가들이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자 한국기업들의 CIS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최대시장으로서의 그 경제잠재력을 감안하여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증진방안을 새로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지 무역제도의 미비에 따른 문제와 투자상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등 전반적인 진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교역구조로 인해 현지 및 한국내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상품구조의 다양화를 이룸으로써 교역확대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對중앙아시아 투자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형 투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형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언어장벽, 정보부족 등으로 파트너 모색 및 공급제품 선정에서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국 언어로 동시에 비즈니스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면서 양국 언어에 능통한 고려인 동포들을 활용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시장원리보다 정부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투자진출시 다른 국가들보다 투자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사업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이미 양국간에 결성되어 있는 정책협의회나 경제공동위원회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어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 對개도국 지원을 점차 확대해야 할 입장인바,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수송,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 기업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자원개발과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사업 등의 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양국간 경제협력의 유망부문으로는 자동차부품 조립, 가전제품 조립, 섬유직물 제조 및 농산물 가공분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관·산·학·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차례

국문요약	5
<b>제1장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우즈베키스탄</b>	<b>13</b>
1.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학적 가치	13
2.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위상	16
3.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의 중요성	18
<b>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정치</b>	<b>20</b>
1. 국내정치	20
가. 정치구조 / 20	
나. 최근 정치동향 / 23	
2. 대외관계	25
가. 대외관계기조 / 25	
나. 대외관계동향 / 27	
3.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 전망	31
<b>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경제</b>	<b>34</b>
1. 국내경제	34
가. 경제구조 / 34	
나. 주요 산업 / 36	
다. 거시경제 분석 및 전망 / 44	
2. 대외경제	48
가. 무역 및 수지 / 48	
나. 외국인투자 / 51	
다. 대외부채 / 52	
라. 환율제도 / 54	

3. 주요 경제정책과제 .....	55
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 55	
나. 민간부문 강화 / 56	
다. 정부통제 완화 / 56	
<b>제4장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과 증진방안</b> .....	<b>57</b>
1. 개요 .....	57
2. 교역 .....	58
3. 투자 .....	62
4. 경제협력 증진방안 .....	65
가. 정책과제 / 65	
나. 유망 협력분야 / 69	
<b>참고문헌</b> .....	<b>73</b>
<b>부록</b> .....	<b>75</b>
1. 우즈베키스탄 국가 개황 .....	75
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지역협력기구 참여 현황 .....	77
3.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개황 .....	81
<b>Executive Summary</b> .....	<b>83</b>

## 표 차례

표 2-1.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하원의원 선거결과(2004년 12월 26일) .....	23
표 3-1. 면화 국제가격시세 동향 .....	38
표 3-2.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부문 산출량 변화 추이 .....	39
표 3-3. 우즈베키스탄의 금 생산량 추이 .....	42
표 3-4.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	45
표 3-5.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45
표 3-6.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국제 거시경제지표 .....	50
표 3-7.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1998~2003년) .....	50
표 3-8.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입대상국 현황 .....	51
표 3-9.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52
표 3-10.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부채 현황 .....	53
표 3-11. 우즈베키스탄의 승貨의 공식환율 변화 추이 .....	54
표 4-1.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추이 .....	59
표 4-2. 對우즈베키스탄 품목별 수출내역(2005년 1월 기준) .....	61
표 4-3. 對우즈베키스탄 품목별 수입내역(2005년 1월 기준) .....	61
표 4-4. 對우즈베키스탄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 현황 .....	64

## 그림 차례

그림 3-1.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 변화 추이 .....	40
그림 4-1.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추이 .....	60
그림 4-2.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추이 .....	63
그림 4-3. 업종별 對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내역(2004년) .....	64

---

# 제1장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우즈베키스탄

## 1.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학적 가치

1991년 12월 소연방이 해체된 이후 발트 3개국을 제외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하였다. 그 가운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의 신생 독립국을 통상 중앙아시아라 한다. 현재 중앙아시아에는 약 5,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독립국으로 탄생하기 전까지 소련제국의 변방에 속해 있었던 중앙아시아 5개국은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장기간 차단되어왔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세계화가 가장 늦게 시작된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소연방 붕괴와 냉전 해체에 이어 새롭게 진행되는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증대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앙아시아는 BC 8세기부터 중세 후반기까지 담당했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역할을 되찾기 시작했다”<sup>1)</sup>고 언급한 소디크 사파예프(Sodiq Safaev)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국제무대의 변두리지역이 아니며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대한 강대국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예컨대 미국은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해 막대한 재정적 원조와 미군 주둔을 통해 이 지역에서

---

1) Jan M Kalicki and Eugene K. Lawson ed. (2003), *Russian-Eurasian Renaissance?: U. S. trade and investment in Russia and Eurasia*, p. 404.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앞마당으로 생각해온 러시아도 그에 뒤질세라 2004년 10월 이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에 합류하면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힘쓰고 있다.<sup>2)</sup>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경제·외교·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만들어 중앙아시아의 신생국들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서서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일본 역시 소란스럽지는 않지만, 중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 확대 등을 통해 이 지역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학적 역할이 부각되고 4대 강국이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

첫째,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대륙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들의 움직임과 선택이 광대한 유라시아대륙의 세력균형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sup>3)</sup>

둘째, 중앙아시아는 제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석유·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유와 가스의 공급지로서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가치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에너지자원의 개발권과 그 수송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면 중앙아시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야심이 미국·러시아·중국·터키 등의 치열한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동기이다.

2) 각고의 노력 끝에 이 기구에 가입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대륙의 판도는 중앙아시아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명함으로써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을 다시 국제사회에 부각시켰다(INTERACTUS, 2004. 10. 18).

3) 박상남(2004),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 제8권 4호, pp. 148~149.

셋째,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광대한 교통·통신망이 교차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즉 이란을 통해서는 페르시아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통해서는 인도양,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중앙아시아는 향후 세계적인 물류 허브(hub)로 우뚝 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sup>4)</sup>

장차 중앙아시아지역은 유라시아대륙의 안보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공통분모 외에도 내륙국가라는 제약으로 인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아시아 역내국가들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며 중앙아시아의 위상은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아시아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며 유망한 협력대상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중앙아시아는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탄생한 신생독립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개척지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상품판매시장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유라시아 다자안보벨트 구축의 중요한 축인 동시에 중국견제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4) Ашимбаев М.С. и Лоумулин М.Т.(2002)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ября: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Алматы, сс. 80~81.

## 2.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위상

중앙아시아국가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맹주로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와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sup>5)</sup>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역사·문화적 발원지역이자 중심지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도시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으며 유목문화와 이슬람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해온 중앙아시아 문명의 근거지였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지닌 우즈베키스탄은 신라시대부터 돌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교류를 해왔으며 현재에도 역사·문화적으로 중앙아시아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국가 중에서 군사·외교적으로 독자성이 가장 강한 국가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역사나 문화적 자부심은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강력히 러시아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펴면서 독자노선을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적 노선은 9·11 이후 전개된 아프가니스탄전쟁 과정에서 미군주둔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타지키스탄 내전 개입과 키르기스스탄내 우즈베크인 거주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시도는 우즈베키스탄의 패권적 성향을 드러낸 사건으로 간주되

5) 중앙아시아의 역사는 우즈베키스탄지역의 역사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침략과 지배는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영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우즈베키스탄의 야심에 주변국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국가 가운데 최대 인구보유국(약 2,600만 명)일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도 가장 높아 최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타지키스탄(약 750만 명), 투르크메니스탄(약 500만 명), 키르기스스탄(약 498만 명) 등 세 나라를 모두 합친 인구보다 많으며, 카자흐스탄(약 1,500만 명)보다도 월등하다. 이러한 인구규모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인 동시에 군사·외교적 측면에서도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평가된다.

넷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한가운데 위치함으로 인해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의 안보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전략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원될 新실크로드가 지나가고 아시아, 유럽 및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광통신망이 통과하게 될 중앙아시아의 십자로(十字路)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열강들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의 최우선국가가 되고 있다. 열강들은 석유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카자흐스탄을 우선시하지만, 안보·군사적 측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가장 중요한 국가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러시아·이란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와 원유공급처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달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중국 역시 신장·위구르지역의 독립운동 봉쇄를 통한 단일국가 유지라는 국가적 과제와 미국의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즈베키스탄의 협조를 구하려고 경제 및 군사원조를 앞세우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가주석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다. 이는 중국의 서부전략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준다. 러시아는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우즈베키스탄을 다시 영향권 안에 잔류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

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취임 후 처음 방문한 국가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었다. 일본 역시 對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측면과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해 대규모 차관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열강들의 치열한 지정학적 게임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정치에서 그 비중 또한 커져가고 있다.

### 3.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의 중요성

상술한 바와 같이, 냉전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지역이 유라시아대륙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이미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힘쓰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강대국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심지로서 동북아시아에서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한반도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한국도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아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한편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 건설, 민주주의 도입, 시장경제 정착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개척지 혹은 자원공급지로서 우리나라의 유망한 협력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對유라시아전략을 구사함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정책은 단순한 상품판매시장 혹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거점 마련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미래의 에너지 확보와 우리의 유라시아전략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적인 차원에

서 우즈베키스탄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대륙철도가 연결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력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경우 장차 중국이 유라시아대륙의 패권적 지위를 차지더라도 우리의 對중국 정책은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20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자리잡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에 한류(漢流) 벨트를 형성한다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 1. 국내정치

#### 가. 정치구조

##### 1) 대통령 중심의 권력독점구조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구소련 시절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장을 역임하였고 구소련 붕괴 후 1991년 12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반대하였으며 1991년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연방 해체를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쿠데타를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쿠데타가 실패하자 급선회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1992년 12월 8일에 제정된 우즈베키스탄 헌법에는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공정한 재판을 수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의회·사법부가 대통령을 행정적으로 보조하며 대부분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1991년 5년 임기인 대통령에 당선된 카리모프는 1995년 국민투표에 의해 자신의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단임제이나 카리모프 대통령은 권력장악력과 지지도를 기반으로 2002년 4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5년의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다시 연장하였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07년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부는 총리, 부총리 10명(제1부총리 포함), 26개 부처장관, 24개 국가위원회 의장, 8개 기타 국가기관 대표,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중요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다. 현 미르지야예프 총리는 대통령의 고향인 사마라칸트 주지사를 지냈으며 카리모프 대통령의 잠재적 후계자로 알려져 있다.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 최고의회)’라고 불리는 의회는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친정부성향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가 단원제로 이루어졌던 시절에는 총 250명의 국회의원 중 100명은 지방자치체의 간접선거에 의해, 나머지 150명은 비례투표제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2004년 12월에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의회는 양원제로 분리되었으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120명의 하원과 100명으로 이루어진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12개 지역구,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 타슈켄트市에서 84명의 상원을 선출하고 카리모프 대통령이 나머지 16명을 임명한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이행을 민주주의 발전의 결과라고 반기며 국회가 행정부를 지명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004년 하원선거에서 친정부성향의 자유민주당이 34%의 득표율을 차지하여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였다.<sup>6)</sup>

사법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헌법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재판하도록 역할이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국가기관 및 관료들의 법률위반사항을 취급한다. 대법원은 법률 위헌 여부를 판결할 권한이 없으며, 지방법원을 관할하고 고등법원은 특별히 경제분야의 정의확립을 목표로 법인간 또는 기관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소송을 판결한다. 지방법원은 12개 주,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 타슈켄트市에 설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 추천 후 의회에서 임명되나 지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6) 자유민주당이 구공산당인 국민민주당을 대체하여 다수당이 되었으나 친정부적 성향에는 큰 변함이 없다.

직접 임명한다.

검찰은 독립적인 조직으로 법집행의 감독에 주력하며 검찰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으며 기타 지방법원 검사는 검찰이 임명한다. 임기는 5년으로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정부조직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국가안보국(SNB)은 KGB를 승계한 국가안보기관으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이슬람지도자들의 세력 확장을 막고 외교관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비밀경찰의 제2조직은 내무부 산하의 경찰청으로 내국인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up>7)</sup>

## 2) 친정부성향 정당의 의석 독점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 최고의회)’라고 불리는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양원제로 총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된다. 총 5개 정당에 소속된 의원과 무소속 의원 120명이 하원을 구성하고 있다.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모두 친정부정당으로 실질적인 야당은 정권의 방해로 의회 선거 등록조차 하지 못했다.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였으나 2004년 선거에서는 자유민주당<sup>8)</sup>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의석을 차지한 나머지 3개의 정당은 아돌라트(정의) 사회민주당, 피도코를라르당(순교자당), 밀리 티클라니시당(국민부활당)으로 역시 친정부성향을 띠고 있다.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의 정치적 기반은 매우 약하며 친정부성향의 정당을 견제할 정도의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했다. 이 정당들은 대부분 이슬람 극단주의 노선을 추구하며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슬람

7) 안보를 담당하는 기구로는 SNB 이외에 내무부 소속 치안군대와 국가수비대가 있으며, 1999년에 치안군대 산하에 국경수비대를 신설하였다.

8) 자유민주당은 2003년 결성된 친정부 정당이다.

극단주의 정당의 분파는 폭력·비폭력 등 정치노선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표 2-1.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하원의원 선거결과(2004년 12월 26일)

정당	의석 수
자유민주당	41
국민민주당	33
피도코를라르당	18
밀리 티클라니시당	11
아돌라트 사회민주당	10
무소속	7
계	120

자료: EIU(2005), *Country Profile: Uzbekistan*.

## 나. 최근 정치동향

### 1) 카리모프 대통령의 권한 강화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0년대부터 권력집중화를 시작하였으며 정치적, 경제적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2002년에 개혁을 위한 일련의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카리모프 정권은 1992~93년에 야당지도자를 구금하였고 의회선거에서는 야당후보자들의 선거등록을 거부하는 등 반정부성향의 야당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왔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임기를 연장한 바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단임제로서 카리모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지지도와 실질적인 야당의 부재를 고

려해볼 때 2007년 대선 전에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직에 재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2) 이슬람 극단주의의 안보위협

1993년에 야당이 붕괴된 이후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3개 분파로 분리되어 있다. 첫째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사원공동체와의 협력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극단주의 무슬림 분파이며, 둘째는 비폭력적 극단주의 히즈브 우트-타흐리르당(자유당), 마지막 분파는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는 폭력적 무장단체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당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비공식적 이슬람 운동단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하였다. 1992~97년 타지키스탄 내전 당시 카리모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의 공산권 동맹자와 대치하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고, 이는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탄압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1999년에 15명이 사망한 타슈켄트 차량 폭탄테러사건의 배후로 야당인 에르크당, 국내 이슬람단체, 외국 테러단체가 지목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당은 1990년대 초부터 카리모프 정권의 탄압을 피해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제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1997년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평화협정으로 인해 본거지를 잃은 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세력과 연계해왔으며 알카에다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테러 빈발로 사회불안 가중

1999년 7월에 650명의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당원이 키르기스스탄 국

경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침투하려 했으나 정부에 의해 무산되었고, 2000년 8월에 재침투를 시도했으나 군대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슬람운동당이 우즈베키스탄에 미치는 위협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리모프 정권은 이 단체의 소탕을 안보의제의 최우선순위로 상정하고 2000년 9월에는 탈레반과도 외교적 대화를 시도한 바 있다.

2001년 9월 미국 테러사건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탈레반과의 공조관계를 포기하고 친미로 돌아섰다. 2001년 후반과 2002년 초에 실시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으로 인해 이슬람운동당의 세력은 상당히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생존자들이 지하드 이슬람 정당을 결성하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4년 3월에도 폭탄공장에서 우발적인 폭발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타슈켄트와 부하라에서 폭탄테러를 일으키고 경찰과 무력대치를 벌여 40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들은 2004년 7월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관, 검찰총장실에 대한 자살폭탄테러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같이 빈번한 테러사고의 발생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추가테러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대외관계

### 가. 대외관계기조

1991년 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CIS 회원국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유지하되 민족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외교노

선을 추구하였다. 최근에는 親미·親서방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對서방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미국, 유럽 등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로 이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지원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카리모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 방문했던 터키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사회주의 요소를 가미한 독자적 경제모델을 발전시켜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sup>9)</sup> 친서방정책의 대상은 주로 미국이며,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양측은 1996년에 비로소 협력관계 및 공조협약(PCA)을 체결하였으며 유럽의회는 1999년 2월에야 이를 비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의 최우선과제는 독립 직후부터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안보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이란과 파키스탄의 지역적 팽창, 우즈베키스탄 정치망명자들에 대한 터키의 망명허가 등에 대해서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2001년까지 러시아와 미국의 안보전략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따라서 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을 위해 10만 명 병력의 구축을 추진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시절부터 중앙아시아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소연방 해체시 대규모의 군사장비를 물려받았으며 2002년에는 5만 5천 명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sup>10)</sup>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 정부예산의 8%를 군사방위에 지출하고 있으나, 이는 10만 명 병력의 구축을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이다.

9) 카리모프 대통령은 집권 초 방문했던 터키(1991년 12월)와 한국(1992년 6월)의 경제발전 경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나 사회주의경제를 감안하여 독자모델에 기초한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0) 2003년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신 장교는 90%에 달했으나 군사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IMU의 국경침투를 저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나. 대외관계동향

### 1) 對미 관계

우즈베키스탄의 대미관계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미흡, 야당 탄압 등 우즈베키스탄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소원한 편이었으나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양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공군기지를 제공하면서 대미관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요청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의 국경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아 대미 관계가 다시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또한 미국은 2004년 7월 우즈베키스탄에 지원하기로 예정한 5,500만 달러 중 1,800만 달러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미국대사관에 폭탄테러가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랭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정책은 우즈베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권문제 개선 및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견제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對중 관계

우즈베키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총 6개국으로 CIS 역외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CIS 내의 유일한 협력체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1989년 5월 중·소 관계 정상화 이후 중·소간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모태로 하여, 1996년 4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이 개

최한 정상회의에서 ‘상하이-5’로 출범하였다. 이후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6차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면서 ‘상하이협력기구’로 재출범하였다.<sup>11)</sup>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4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향후 상하이협력기구와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우즈베키스탄에 할당될 예정이다. 또한 2004년 6월 ‘우즈베크석유가스회사’(Uzbekneftegaz)와 ‘중국국영석유회사’(CNPC)는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및 가스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 3) 對CIS 관계

우즈베키스탄은 다양한 지역협력기구를 통해 CIS 국가들과 교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구로는 ‘중앙아시아협력기구(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CACO)’가 있다. 이 기구의 전신인 ‘중앙아시아 지역연합(Central Asian Regional Union: CARU)’은 1994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이 모여 공동시장과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대 초 구소련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경제통합에 합의했으나, 1993년 투르크메니스탄이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타지키스탄이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나머지 3개국이 회원국이 되었다. 이후 1998년에 타지키스탄이 가입하면서 명칭이 ‘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 CAEC)’로 변경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중점으로 한 경제정책의 실시

11) 1997년 4월: 제2차 정상회담(러시아, 모스크바), 1998년 7월: 제3차 정상회담(카자흐스탄, 알마티), 1999년 8월: 제4차 정상회담(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2000년: 제5차 정상회담(타지키스탄, 두산베) 개최.

를 주목표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CAEC는 주로 경제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국경분쟁 당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1999년과 2000년에 발생한 일련의 급진 이슬람단체들의 테러로 인해 2000년 4월에 10년 기한의 안보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2002년 1월에 CAEC를 대체하여 경제 및 안보를 통괄하는 기구로 CACO를 설립하였다.<sup>12)</sup>

또한 러시아 지역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CIS 5개국은 1997년 미국의 제창으로 GUUAM 연합<sup>13)</sup>을 결성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에 가입했으며 카스피해 에너지개발과 운송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 배제, 동·서 교류의 활성화, NATO와의 공조, 대테러 협력 등을 의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GUUAM은 연례회의의 빈도도 낮고 상설기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러시아를 견제하는 기구로서는 역부족이다. 2000년에 5개국 정상들이 모여 연례회의를 정기화하자는 데 합의를 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의 비협력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부분의 GUUAM 회원국에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 제공국이자 주요 수출국이며 제1순위 채권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견제정책을 실현하는 데 많은 제약 을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CIS내의 이슬람국가로서 다른 이슬람국가와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왔다. ‘이슬람협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는 57개국의 회원을 둔 정부간 기구로서 1969년에 모로코에서 설립되었다. CIS 국가 중에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12) 이후 2004년에 러시아가 가입하면서 총 5개 회원국이 되었고, 현재 그루지야·터키·우크라이나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13) GUUAM 연합이란 그루지야(Georgia), 우크라이나(Ukraine),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몰도바(Moldova) 등 5개 회원국의 영문 이니셜을 따온 것이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OIC에 가입을 하였다. 이 기구의 목표는 이슬람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며 주요 기관은 3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이슬람 최고협의회이다.<sup>14)</sup>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안보 및 경제협력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주변국들과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은 페르가나<sup>15)</sup>지역을 중심으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상호 대립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카자흐스탄과는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을 놓고 경쟁해왔다.<sup>16)</sup> 이러한 독자성은 경제협력분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CIS 국가간 자유무역지대 창설협정에 관한 개정의정서(1996년 4월)에 의거한 경제협의회가 1996년 6월에 신설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이 위원회에 불참하였다. 또한 2001년 5월에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 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 Economic Community: EurAsEC)가 공식 출범했으며, 2003년 9월에는 러시아·벨로루시·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4개국이 CIS를 대체할 경제연합체로서 ‘공동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 CES)’ 창설에 합의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이에 대해 기존 CIS의 협력체제를 저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안보협력에서 CIS 국가들과의 다자협력보다는 러시

- 
- 14)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은 터키, 파키스탄, 이란 등 3국간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에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정식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 15) 페르가나지역은 구소련 당시 단일 행정구역하에 다민족이 혼합거주하여 왔으나, 구소련 붕괴 이후 3개국이 영토분할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1990년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 사이에 유혈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 16) 독자적인 민족주의정책과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내전 개입 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자흐스탄에 패권국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아와의 양자협력에 치중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양자 안보관계 강화를 이유로 1999년 CIS 공동안보조약(Collective Security Treaty: CST)을 탈퇴하였다.<sup>17)</sup> 2001년 카리모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우즈베키스탄의 안보보장국이며 전략적 협력국으로 명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간의 전략적 협력조약을 체결되었다. 특히 1999년부터 실시된 반이슬람 투쟁은 체첸사태와 결부되어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공동관심사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3.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 전망

카리모프 대통령은 현재 정치적 독재를 공고화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복수정당제를 무시하고反對정세력인 야당의 선거후보등록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헌법개정을 위시한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집권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개혁이 미진하여 여전히 舊공산당 출신이 지배층으로 남아 있는 등 민주적 시민사회의 기반 또한 부재한 상태이다. 더욱이 현재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1998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소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카리모프 대통령의 권력장악력이 매우 높아서 당분간 주변국들<sup>18)</sup>처럼 정부전복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부 및 NGO들이 야당탄압, 언론통제, 인권제한 등에 대해 비

17) 「공동안보조약」은 1992년에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등 6개국간에 체결된 안보협의체로, 2003년 4월 공동안보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로 발전하였다.

18) 최근 CIS 지역에서는 그루지야의 장미혁명(2003년 11월),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2004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2005년 3월) 등 독재정권의 전복을 수반한 민주화혁명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난<sup>19)</sup>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은 정보의 통제하에 살고 있어 경제개혁의 성과 여부가 정치안정 유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서방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압력으로 일부 개혁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권문제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한편 2004년 6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시에 양국간 안보 및 대테러 공조 등에 관한 전략적 협력협정 체결과 러시아기업의 우즈베키스탄 투자확대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간의 양국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은 CIS내에서 그동안 독자적인 안보노선을 취해왔으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위치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국의 경제원조 감소 등에 불만을 표출하고는 있으나 경제지원 및 지역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과의 급격한 관계악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4년 7월의 미국대사관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경제원조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힌 바 있으며 공군기지 사용 등 군사적·전략적 의미로서의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주요 교역국이자 채권국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유망한 미래의 투자국이자 안보협력국으로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에너지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주요 협력국이자 상하이협력기구의 안보파트너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19)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2004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2005년 3월) 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 NGO들의 지원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반정부세력들의 시민혁명 발생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하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그루지야의 장미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NGO Open Society Institute(OSI)의 타슈켄트 지부를 2004년에 폐쇄하였다.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은 CIS 지역내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미국·중국 등 3개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선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균형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

## 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 1. 국내경제

#### 가. 경제구조

##### 1) 1차산업 의존적 경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차상품의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자국의 공업을 육성하는 수입대체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1차산업 중에서 특히 농업은 2000년 기준으로 GDP의 34.9%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인구의 약 34%를 고용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최대산업이다. 우즈베키스탄 농업의 최대생산물은 면화(Cotton)이며, 이는 경공업인 면화가공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업부문 개혁의 부재와 잇따른 가뭄으로 인하여 면화의 재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식품의 자급자족을 위해 면화재배지를 식용작물재배지로 전환하면서 산출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화는 2003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총수출의 19.8%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은 광업이다. 특히 금은 우즈베키스탄 제2의 수출품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1차산업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면화·금 등의 국제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대체전략을 통해 자국 공업을 육성하는 것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2) 취약한 민간부문

구소련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강도 높은 경제개혁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IMF는 1995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1997년에는 이자율과 환율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시장경제개혁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혁의지 부재로 무산되었다. 특히 환율정책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3년 10월 15일에 공식적으로 환율에 대한 유연성을 도입하는 등 시장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개혁의지를 보였으나, 실질적인 정부의 환율 개입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사유화가 부진하여 외국 자본의 유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민간부문의 육성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걸치레에 불과하여,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약 35% 정도만이 사유화되었다. 2004년에는 총 7,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사유화가 진행되었으나, 이 중 외국투자자들이 소유한 지분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외국투자자본 유입의 부진과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인해 은행·증권 등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으며, 이는 경제개혁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 3) 수입대체산업화정책(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우즈베키스탄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대외지향적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중남미국가에서 유행했던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취약한 국내산업의 육성에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 총경제활동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외자유치를 대신하여 정부지급보증차관(State-Guaranteed Loan)을 도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통해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의 수입대체산업화의 긍정적인 성과는 자급자족형 에너지산업의 육성이다. 에너지산업은 농업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제2의 산업으로, 정부는 석유 및 가스의 생산량 증가에 초점을 두는 에너지 자급자족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일정량을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03년 기준 에너지산업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 나. 주요 산업

### 1) 농업

#### 가) 농업부문의 특징 및 문제점

##### (1) 토지의 사유화 금지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시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사적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되어왔기 때문에 농민들은 영구임대방식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농민의 임대권도 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해서 박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작의욕이 저하되어 농업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부문에는 여전히 국영농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2001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 산출량의 99%를 개인경작이 차지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농지가 아닌 자택 텃밭에서의 경작<sup>20)</sup>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0) 자택의 정원 등지에서 과실, 야채, 가축 등을 재배하여 식료품을 자급자족하고 잉여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형식이며, 현재 식료품 산업생산의 75%를 담당하고 있다.

## (2) 정부곡물수매제도(Goszakaz)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구소련 시절과 마찬가지로 정부곡물수매제도(Goszakaz)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입하여 높은 가격에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시스템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 제조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재분배되거나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흡수된다. 또한 정부의 농산물 수출시기가 수매시기보다 늦음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농민의 불만가중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면화산업의 경우, 국영기업(Uzauktionavdo)이 면화의 수매가격을 결정<sup>21)</sup>하고 수출을 독점하고 있다. 2003년 이후로는 산출량의 일부에 한해서 농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2003년 10월에 서명된 「2004~06년 농업부문 발전계획에 관한 대통령령」은 오히려 농업부문의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농업부문의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

## (3) 면화생산 중심의 농업구조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7위의 면화생산국이며 세계 1위의 면화수출국으로, 인구의 약 60%가 면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면화의 생산량은 정체를 보이다가 2004년에 약 350만 톤을 생산하여 전년대비 23.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지속되는 가뭄과 개혁의 부진으로 인한 산출량 감소로 총수출에서 면

2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1년까지 소비에트식 정부곡물수매제도(Goszakaz)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면화를 독점구매하였다. 이후 IMF의 권고로 인해 구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이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February 2005, *The Curse of Cotton: Central Asia's Destructive Monoculture*, p. 4).

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39%에서 2002~04년 사이에 21%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면화의 국제가격시세는 2002년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2005년에도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출량 증가와 더불어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표 3-1. 면화 국제가격시세 동향**

(단위: 센트/피운드)

	2002	2003	2004	2005
면 화	46.2	63.3	71.2	75.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4. 10), 『우즈베키스탄』에서 재인용.

나) 최근 농업부문 동향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부문의 산출량이 2004년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2004년 농업부문의 산출량은 면화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에 면화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3.7%의 증가를 기록하면서 국제가격의 호조 속에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반면에 곡물의 생산은 2004년에 전년보다 20만 톤 감소한 540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 중 480만 톤은 밀이 차지했다. 정부는 수입대체전략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줄이기 위해 식용곡물의 자급자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현재 자급자족을 위해 필요한 곡물의 양은 연간 약 400만 톤 규모이다. 따라서 곡물의 국내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표 3-2.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부문 산출량 변화 추이

품목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면화	천 톤	3,001	3,280	3,204	2,856	3,534
	증감률(% , 전년대비)	-16.6	9.3	-2.3	-10.9	23.7
	면적당(톤/ha)	2.08	2.28	2.31	2.12	2.49
곡물	천 톤	3,916	3,965	5,340	5,610	5,425
	면적당(톤/ha)	2.43	3.20	3.48	3.14	3.95

자료: EIU(2004. 12), *Country Report: Uzbekistan*에서 부분 발췌.

## 2) 에너지산업

### 가) 에너지산업의 특징과 문제점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에너지 생산은 석유와 천연가스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처럼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정도의 채굴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주로 국내소비용으로 사용된다.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석유의 생산량은 1999년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가스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실행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국내소비를 제외한 소량의 잉여생산량을 인근 CIS 국가에 수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중가격제도(Dual Pricing)<sup>22)</sup>로 인해 에너지산업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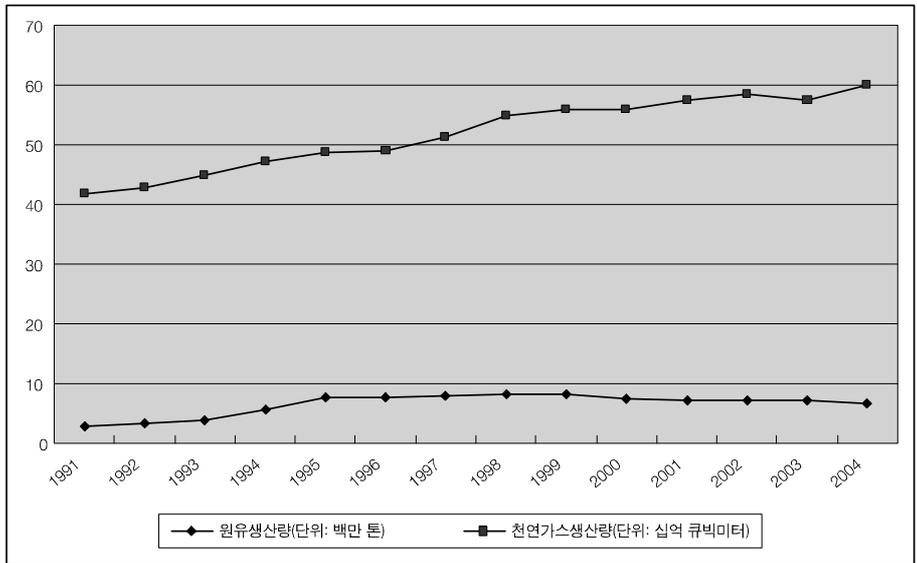
현재 에너지산업은 농업의 뒤를 이어 우즈베키스탄 제2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3년 우즈베키스탄 총수출의 9.8%를 에너지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제한과 파이프라인의 부재로 인하여 주로 키르기스

22) 이중가격제도(Dual Pricing)란 에너지자원,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의 국내공급가를 수출가에 비해 낮게 책정하여 국내가계 및 산업생산자에게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집약적인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효과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재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야기한다.

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인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및 가스산업은 국영기업인 우즈벡석유가스회사(Uzbekneftegaz)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는 에너지 자급자족의 달성을 위해 우즈벡석유가스회사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정부지급보증차관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석유 및 가스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었다.

그림 3-1.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 변화 추이



자료: Petroleum Economists, *Press Reports*; Uzbekistan Economic Trends, *Press Reports*.

향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석유 및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확충이 절실하다. 열악한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주로 인접국가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며, 수출대금이 연체되는 일도 비일비재하

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독자적인 파이프라인 건설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쉽지 않고 카스피해 연안국과의 조율을 통해 카스피해 파이프라인과 연결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나) 최근 에너지산업 동향

원유생산은 1998~99년에 최대를 기록한 이후 추가개발능력의 부재와 기존 광구의 매장량 고갈로 인하여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에너지부문의 구조조정 및 개혁이 늦어지고 있어 생산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투자자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공급가를 수출가에 비해 낮게 책정하여 국내 가계 및 산업에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중가격제도(Dual Pricing)를 실시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가격이 비교적 높은 카자흐스탄 등지로 밀수출이 자행되고 있어 국내의 석유부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유와는 반대로 천연가스는 지속적으로 생산량과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천연가스 역시 이중가격제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부흥을 위해 러시아 기업들을 통해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2004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루코일(Lukoil)사와 35년 기한의 생산물분배조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을 체결하여 우즈베키스탄 중부의 칸뎀-카우작-샤디(Kandym-Khauzak-Shady) 가스전에 약 1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다. 생산물분배조약하에서 루코일 90%, 우즈베크석유가스회사 10%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천연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러시아 최대의 국영가스독점기업 가즈프롬(Gazprom)과 샤흐파흐티(Shakhpakhty) 가스전에 대해 생산물분배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 중이다.

### 3) 광업

우즈베키스탄은 금, 우라늄, 동 등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금은 우즈베키스탄의 제2의 수출품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금 생산량은 현재 세계 4위이며, 최근 5년간 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총수출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의 국제시세가 비교적 상승추세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화획득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에는 연간 약 70톤의 금을 생산하였으나, 2003년에는 86톤을 생산하는 등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 금광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다른 부문에 비해 활발하여 우즈베키스탄 최대 금광회사 4곳 중 2곳은 외국과의 합작회사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NMMK(Navoi Integrated Mining & Metals Combine)로 미국의 뉴몬트(Newmont)社와 합작하여 자라프산-뉴몬트(Zarafshan-Newmont)社를 설립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금 생산은 최근 큰 변동 없이 일정량을 유지해 연간 80~86톤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라프산-뉴몬트社가 전체 금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15~2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 3-3. 우즈베키스탄의 금 생산량 추이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생산	톤	80.0	88.0	86.0	n/a	86.0
	증가율(% 전년대비)	14.3	10.0	-2.3	n/a	n/a
Zarafshan- Newmont	톤	16.7	15.4	13.5	16.1	13.6
	비율(%)	20.9	17.5	15.7	n/a	15.8

자료: Reuters, Gold Field Mineral Services Ltd 등. EIU(2005), *Country Profile: Uzbekistan* 에서 재인용.

#### 4) 제조업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2001년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3% 정도만 흡수하고 있다. 구소련 시절에는 모스크바의 통제하에 각 공화국별로 제조업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주로 농기구 등 경공업제품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가 되면서 시장이 구소련 전체에서 자국으로 줄어들어 수요가 급감한데다가 낙후된 공장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제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외자를 도입하거나 사유화를 하는 대신 주수출품인 면화·금 등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자국의 제조업에 투자하는 정책인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특히 귀금속산업·항공산업·통신산업 등 국책산업으로 지정한 산업에 대해서는 사유화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다. 주요 제조업의 육성이 실질적인 제도개선 없이 정부의 강한 통제하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자본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성이 노출되었고 성과도 지지부진하여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었다. 또한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면서 외국상품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었다.

제조업의 수입대체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이 기업의 부채문제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조업의 회생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대신 1차상품의 수출이익을 제조업으로 이전시켰을 뿐 아니라, 각 기업은 외국으로부터 정부지급보증차관을 도입하였다. 1998년 IMF의 집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기업의 순수출소득은 1억 8,300만 달러였던 데 반해 기업부채의 이자만 해도 2억 900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85%에 이르는 급격한 숄(Som)貨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기업의 부채규모는 더욱 증가하였다.

## 다. 거시경제 분석 및 전망

### 1) 경제성장

구소련의 붕괴 이후 대부분의 CIS 국가는 급격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경험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침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주요 CIS 국가가 사유화 및 자유화를 기치로 대외 지향적 시장경제를 추진했던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기조로 자국 산업의 육성에 집중하였다.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시행 초기에 가시적인 경제성장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면화와 금의 국제시세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농업부문의 수출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에너지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면서 잉여에너지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도 개혁 초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에 큰 몫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역사적 사례와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듯이,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에는 적합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1990년대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던 주요 CIS 국가가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들어서 CIS 국가 중 가장 낮은 4%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표 3-4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4년에는 GDP 증가율이 기존의 4%대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7.7%를 기록하였다. 이는 면화와 에너지의 국제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 표 3-5의 향후 2년간 경제성장이 3~4% 정도로 전망됨에 따라, 2004년의 경제성장은 근본적인 경제개혁에 의한 장기적인 고성장의 시작이 아니라 단기적인 외부효과에 의한 성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부실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 문호를 개방하고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로 전환

하여 세계경제에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3-4.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인구	백만 명	24.0	24.2	24.6	25.2	25.5	25.8	26.0
GDP	십억 달러	15.0	16.4	13.8	11.5	9.7	10.0	10.6
1인당 GDP	달러	630.4	678.6	557.4	456.0	379.8	382.9	400.4
실질 GDP 성장률	%	4.3	4.4	4.0	4.5	4.2	4.4	7.7
실업률	%	0.5	0.4	0.4	0.4	0.5	0.6	1.2
인플레이션	%	29.0	29.1	24.9	27.3	23.9	12.7	3.2
정부재정수지	%/GDP	-0.2	-1.7	-1.0	-1.0	-0.7	-0.4	-0.5

자료: CIS Statistical Committee(<http://cisstat.com>); Global Insight(September 2004), *PlanEcon Review and Outlook- the Former Soviet Republics*.

표 3-5.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주요 지표	단위	2005		2006	
		Global Insight	EIU	Global Insight	EIU
GDP	십억 달러	11.0	-	11.0	-
1인당 GDP	달러	410.3	-	404.8	-
실질 GDP 성장률	%	4.1	3.0	3.1	3.5
실업률	%	1.5	-	4.6	-
인플레이션	%	5.1	3.8	11.9	7.2
정부재정수지	%/GDP	-0.5	-1.5	-3.1	-2.0

자료: EIU(2004. 12), *Country Report: Uzbekistan*; Global Insight(September 2004), *PlanEcon Review and Outlook- the Former Soviet Republics*.

## 2) 인플레이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가격안정화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정부지급보증차관을 지속적으로 도입한 결과 국내에 통화량이 급증하였으며, 생필품과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지출이 정부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로 인해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20%대를 기록하였다. 이에 2003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인플레이션을 3.2%로 낮추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인플레이션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sup>23)</sup>

최근 전력가격의 인상과 공공부문 임금의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10%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향후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전망이다.

## 3) 재정정책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민간부문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 특히 정부는 취약한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빈곤층에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 정부지출의 50%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 3-3에서 나타나듯이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에 비추어볼 때, 2004년의 -0.5% 재정적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비교적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막대한 정부지출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

23) 정부의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은 국영기업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나 우즈베키스탄에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아 실제로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부가 주요 산업을 소유하고 있어 이로부터 많은 세수를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구조는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취약한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부지급보증차관을 도입하는 등 ‘유사재정정책(Quasi-fiscal Activities)’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국제적인 경제변동에 자국의 산업이 타격을 받았을 때 세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오히려 지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수를 줄이는 한편, 이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2003년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업의 소득세를 4% 낮추고, 개인소득세도 재산등급에 따라 최고 2.3%에서 1%까지 감면하였다. 이로 인해 GDP 대비 정부의 세수규모는 2002년 33.2%에서 2003년 32.5%로 하락하였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국경무역을 금지하고 정부통제하에 두었으며, 수입관세율을 높였다. 또한 2003년 말 신규 외국계 합작기업에 혜택을 주던 세금면제를 폐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켰다.

현재 재정적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선행과제는 국영기업의 사유화이다. 국영기업의 사유화는 매각대금이 정부소득이 될 뿐 아니라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다.<sup>24)</sup>

24) 2003년 사유화로 인한 정부소득은 약 5,700만 달러로 2002년에 비해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04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경제의 35%만이 사유화되었다. 이에 Global Insight, EIU 등 경제예측기관들은 2005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적자규모를 2~3%로 높여 잡았다.

#### 4) 통화정책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우즈베키스탄 통화정책의 기초는 수입대체 산업화전략을 통해 주요 산업부문과 국영기업에 싼값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은 이자율, 재할인율 등을 마이너스 금리로 유지하였다. 이는 2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을 뿐 실질적으로 산업부문의 발전에 대한 성과는 미약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3년 10월에는 환율에 대한성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3.2%를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긴축통화정책의 기초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정부의 환율개입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통화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2. 대외경제

### 가. 무역 및 수지

1996년까지 매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던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무역규모는 1998년 이후 감소하여 이전의 규모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추세이다. 수출은 1997년을 고비로 러시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CIS 역내교역 위축과 수출주력상품인 면화의 흉작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4년에 수출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약 48억 달러, 수입은 약

86.7%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4년 1/4분기에 수입은 연초에 식료품에 새로운 수입관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4.6%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은 1.5% 증가하였다. 이는 제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긍정적인 결과로 총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면화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8.6%에서 2003년 19.8%로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나름대로 국내산업을 육성하여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데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나 에너지 수출은 정체되어 2003년에 9.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파이프라인을 비롯하여 수출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는 1998년 이래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무역수지는 약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억 달러 흑자에 성공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경상수지는 악화되었다. 1991년 경상수지 흑자는 총 GDP의 20.5%에 달했으나, 1992년에 급격하게 11.7%의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2001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었으나, 이후 흑자기조로 돌아서 2004년에는 약 6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입 상대국은 서방과 CIS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도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표 3-8에 나타난 2004년 9월까지의 통계에서 보면, 주요 수출상대국은 러시아·중국·우크라이나·터키·타지키스탄 등 CIS 국가 및 주변국들이며, 수입상대국은 러시아·한국·독일·터키·카자흐스탄 등을 들 수 있다.

표 3-6.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국제 거시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출	십억 달러	4.0	3.2	3.2	3.3	3.3	2.8	3.1	4.8
수입	"	4.2	3.1	3.1	2.9	3.1	2.5	2.1	3.9
무역수지	"	-0.2	0.09	0.1	0.3	0.2	0.3	1.0	1.0
경상수지	"	-0.58	-0.04	-0.2	-0.01	-0.29	0.02	0.54	0.69
외환보유고	"	1.17	1.17	1.16	1.07	0.78	0.71	1.10	1.00
환율(기간평균)	숨/달러	66	95	125	232	424	771	971	1,020

자료: CIS Statistical Committee(<http://cisstat.com>); EIU(2004), *Country Profile: Uzbekistan*; EIU(December 2004), *Country Report: Uzbekistan*; Global Insight(September 2004), *PlanEcon Review and Outlook- the Former Soviet Republics*.

표 3-7.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1998~2003년)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b>&lt;수출&gt;</b>						
면화	38.6	27.3	27.4	28.3	26.6	19.8
에너지	7.9	11.5	10.4	11.5	n/a	9.8
기계류 및 장비류	4.2	3.2	3.4	n/a	n/a	9.6
기타	49.3	58.0	58.8	n/a	n/a	80.6
총수출	100	100	100	100	100	100
<b>&lt;수입&gt;</b>						
기계류	47.2	44.8	35.4	41.2	41.8	44.4
화학 및 플라스틱	12.4	11.7	13.6	n/a	15.3	12.8
식료품	15.6	13.1	12.3	n/a	12.6	9.9
기타	24.8	30.4	38.7	n/a	30.3	32.9
총수입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EIU(December 2004), *Country Report: Uzbekistan*.

표 3-8.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입대상국 현황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수출대상국	수출				수입대상국	수입			
	2003년		2004년 1~9월			2003년		2004년 1~9월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러 시 아	437	14.1	402	11.2	러 시 아	554	26.4	510	17.6
중 국	182	5.9	239	6.6	한 국	272	13.0	204	7.0
우크라이나	146	4.7	127	3.5	독 일	236	11.2	190	6.6
타지키스탄	121	3.9	113	3.1	터 키	152	7.2	122	4.2
터 키	90	2.9	101	2.8	카자흐스탄	151	7.2	118	4.1
카자흐스탄	82	2.6	71	2.0	중 국	161	7.7	108	3.7
방글라데시	92	3.0	68	1.9	미 국	282	13.4	81	2.8
한 국	72	2.3	65	1.8	우크라이나	92	4.4	69	2.4
일 본	84	2.7	60	1.7	타지키스탄	74	3.5	59	2.0
미 국	80	2.6	59	1.6	이 탈 리 아	49	2.3	48	1.7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EIU(December 2004), *Country Report: Uzbekistan*.

## 나. 외국인투자

최근까지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외자에 대한 법적규제, 엄격한 외환규제 등으로 인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2000년에 최저수준인 7,300만 달러에서 점차 회복되어 2004년에는 1억 6,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舊사회주의권내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가 적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투자국은 영국, 한국, 터키, 미국 등이며, 투자는 주로 광업·담배산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가장 규모가 큰 외국인직접투자는 British-American Tobacco社가 실행한 약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Newmont社가 참여하여 설립한 금광산업 합작회사 등이 있다. 과거 대우가

참여한 2억 달러 규모 자동차공장 건설도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에 속한다.

최근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부문의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부진 속에 러시아와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영석유가스회사인 우즈베크네프테가즈(Uzbekneftegaz)는 러시아 루코일(LUKoil)과 가스프롬(Gazprom), 중국의 국영석유회사(CNPC)와 석유 및 가스부문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4년 8월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석유 및 가스부문 자금도입과 관련한 정부결의안을 마련하였으며, 25개 프로젝트에 3억 4500만 달러, 석유 및 가스부문 개발에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중점 외국인투자유치분야는 제조업, 통신, 귀금속산업, 에너지산업 등이다. 정부는 1998년에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소 설립자본금의 액수를 기존의 3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인하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표 3-9.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	226 (494)	121 (615)	73 (688)	85 (773)	150 (923)	188 (1,081)	165 (1,246)

자료: Global Insight(September 2004), *PlanEcon Review and Outlook- the Former Soviet Republics*.

#### 다. 대외부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대신에 정부지급보증차관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2년

총부채가 약 45억 달러로 GDP 대비 47.2%에 이르렀다. 이는 1995년 말과 비교했을 때 160% 증가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외채 의존적인 경제는 외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면화와 금은 국제시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면화의 경우는 기후여건에 따라 작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수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재정 및 경상수지의 적자로 이어진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투자매력이 낮아 외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종 수지의 악화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도가 하락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IMF는 우즈베키스탄 개혁 초기부터 SMP(Staff-monitored Program)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개혁의지 부재로 경제구조조정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SMP의 제반조건을 이행하여 IMF의 지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외채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표 3-10.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부채 현황

종류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장기부채	백만 달러	2,851	3,977	4,009	4,090	4,175
단기부채	"	147	626	282	503	331
IMF 차관	"	233	202	127	78	62
총부채	"	3,230	4,805	4,418	4,671	4,568
부채-GDP 비율	%	21.6	28.2	32.2	40.2	47.2

자료: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 라. 환율제도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후 2000년까지 무계획적인 환율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의 지나친 환율개입으로 인하여 환율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외환의 보유를 위해 태환을 규제하였다. 또한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과 숨貨의 태환성 부족으로 자본도피가 발생하면서 공식환율과는 별도로 지하경제 환율이 존재하여 다중환율이 형성되었다.

2000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본격적으로 환율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환율제도 개혁의 목표는 공식환율과 지하경제환율의 통합 및 지나친 평가절하방지조치 마련이었다. 2002년 5월, IMF의 SMP 프로그램에서 제안한대로 공식환율을 지하경제환율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對달러 숨貨 환율을 1,380숨(Som)으로 평가절하하였다. 이후 점차로 환율이 안정되고 점진적인 평가절상이 발생하면서 달러당 975숨(Som)선이 유지되었고, 2003년 10월 15일 태환의 제한을 폐지하면서 다중환율의 통합에 성공하였다. 이후 연간 7%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져 2005년 3월 현재 달러당 1,076숨(Som)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여 향후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표 3-11. 우즈베키스탄의 숨貨의 공식환율 변화 추이

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對 달러	238	424	771	971	1,020
對 유로	253	392	691	918	964
對 루블	9.6	15.1	26.4	31.0	32.5

자료: EIU, IMF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환율개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매달 1%의 평가절하 상한을 두는 일종의 **Crawling Peg**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화수요가 증가할 경우 지하경제의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환율단일화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경화의 수요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3. 주요 경제정책과제

#### 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대체산업화로 대변되는 고립된 경제구조이다. 1차상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국의 제조업 육성에 투자하는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 중속이론에 입각하여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했던 중남미국가들의 선례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연스럽게 경제의 국가통제와 연결되어 경제의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무리한 수입대체산업화전략보다는 우선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국제사회에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경제적 자원을 자급자족하려는 시도에서 탈피하여 1차산업과 노동집약적 생산품 수출중심의 개방통상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으로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나. 민간부문 강화

급진적인 사유화를 추진했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초기의 경제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유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자본도피와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현재 지지부진한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정부재정을 확충하여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정부통제 완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정부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토지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곡물강제수매제도를 실시하여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에서도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하여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국가통제로 인하여 자본도피와 지하경제가 만연하는 한편, 국가의 환율개입으로 인하여 현재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어 수출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 같은 저개발국은 모든 경제부문을 시장에 맡겼을 경우 단기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대외지향적이고 민간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정부통제를 완화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제4장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과 증진방안

### 1. 개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은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 직후부터 한국의 對CIS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對CIS 수출과 수입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주요 진출지역이었으며, 수교와 함께 대우그룹 등에 의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누계기준 총투자규모는 對러시아 투자를 능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한국과 CIS 지역이 동시에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는 열악한 현지진출환경, CIS 진출에 대한 관심감소 등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CIS 각국과의 경제관계가 다소 위축되었다.

1999년 이후 CIS 국가들이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여러 지경학적 관점에서 향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잠재적 수출시장이자 투자처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방안이 새로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인이 전체인구의 0.8%에 해당하여 20만 명에 달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진출거점이 될 수 있으며 현지 경제개혁이 가속화될 경우 사회간접자본 확충,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경제관계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 2. 교역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공식적인 협력관계는 1992년 1월 외교관계 수립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상호간 협정체결<sup>25)</sup>을 통해 양국간 교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2년 6월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고, 한국은 1993년 12월 타슈켄트에 상주공관을 개설하였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6월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함께 CIS내 한국의 4대 교역상대국으로서, 면화 등 원자재의 공급원일 뿐 아니라 CIS내 주요 수출시장이다. 한국의 CIS 수출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01년에 우즈베키스탄의 비중이 21%로 2위를 차지하였다.<sup>26)</sup> 한·우즈베키스탄 교역은 1990년대 한국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촉진되어, 2003년 우즈베키스탄의 對한 수출은 전체수출의 2.3%에 불과하나, 對한 수입은 전체수입의 13.0%를 차지하여, 한국은 26.4%를 차지한 러시아 다음으로 제2의 수입상대국이 되었다.

2004년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은 러시아(65%), 우크라이나(15%)에 이어 3위로 CIS 전체 교역량의 10%에 그쳐 최근 부진한 상태이다. 2004년 한국의 對CIS 수입 가운데 84%가 러시아로부터 이루어졌으며, 수입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입이 1997년 이전의 수준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경제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25) 양국간 협정체결 상황을 보면, 과학기술협력협정(1992. 1. 20), 사증발급 양해각서(1992. 10. 6), 무역협정(1992. 11. 20), 투자보장협정(1992. 11. 20), 항공협정(1994. 6. 6), 이종관세방지협정(1998. 12. 25) 등이 있다.

26) 2001년 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3대 수출상대국이 자 러시아와 함께 2대 수입상대국이었으며 2002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감소되었다가 2003년 이후 다시 2대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수입대체 위주의 산업정책이 강조되면서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1998년 외환위기에 따라 외환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CIS내 일부 국가가 외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수입이 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1990년대 투자하여 설립된 현지 생산기지는 한국산 부품을 공급받아 생산을 전개하여왔으나, 최근 투자철수 및 현지 생산부진에 따라 이기지들의 부품수요가 감소한 것 또한 한국산 상품수출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지 투자회수가 이루어지고 부도처리된 대우가 투자한 현지의 사업장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면서 현지 투자기지에서의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표 4-1.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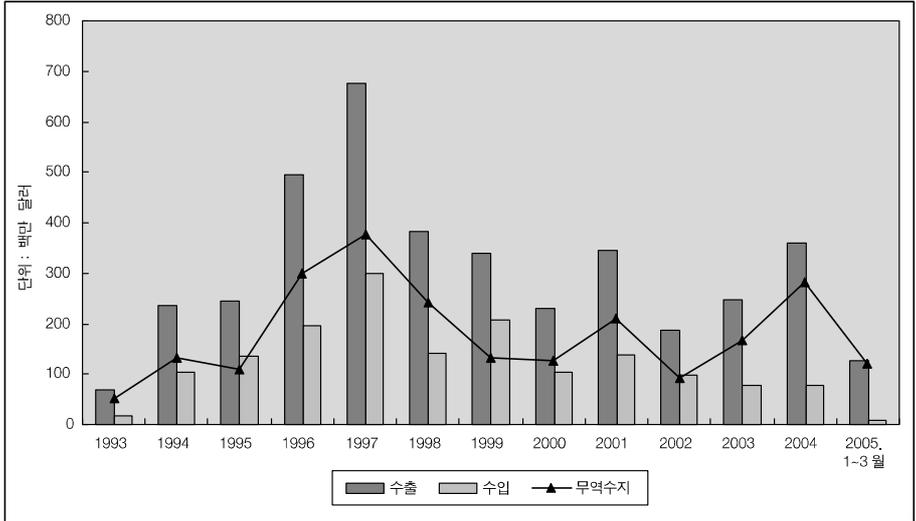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993	70	1,985.7	17	5,202.3	53
1994	237	238.5	105	510.2	132
1995	244	2.9	135	27.9	109
1996	494	102.2	196	45.5	298
1997	675	36.7	298	52.0	377
1998	384	-43.1	142	-52.2	242
1999	341	-11.1	208	46.3	133
2000	230	-32.5	104	-50.1	126
2001	346	50.0	137	31.5	209
2002	188	-45.5	97	-29.2	92
2003	247	31.1	79	-18.4	168
2004	359	45.3	77	-2.5	282
2005(1~3월)	128	91.1	8	-30.5	120

주: 2005년은 3월 통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그림 4-1.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입 추이



주: 2005년은 3월까지의 통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한편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교역의 상품별 구성을 살펴보면 특정 품목에 대한 편중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앞으로 교역확대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부분이다. 2004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약 3억 5,900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수송기계·기초산업기계·철강 등 사회기간산업에 관련된 제품이 상위권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기계의 대부분이 자동차부품이고 그밖에 특장차·승용차·화물자동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2003년 수출품목을 기준으로 현재 UZ-Daewoo의 공장가동으로 인한 기계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한국 가전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전자제품의 수출도 호조를 띠고 있다.

2004년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과 면화 등의 천연섬유원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4-2. 對우즈베키스탄 품목별 수출내역(2005년 1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출 품목	2003년		2004년		2005년 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수송기계	162,384	41	230,273	41.8	32,993	197.5
2	기초산업기계	17,448	-17.4	58,738	236.7	6,991	555
3	섬유제품	1,014	1.9	3,081	201	3,554	229.9
4	철강제품	4,904	53.3	4,904	13	2,274	1,289.7
5	석유화학제품	8,997	55.7	11,695	30	1,941	480.7
6	가구	5,101	32.2	6,852	34.3	1,531	246.3
7	가정용전자제품	4,219	-18.8	4,651	10.2	1,065	204
8	산업기계	5,199	-40.2	5,419	4.2	974	130.9
9	직물	8,505	15.9	6,948	-18.3	694	-21.3
10	산업용전자제품	9,186	163.7	7,681	-16.4	582	-3.3
	총계	247,138	31.1	359,048	45.3	53,801	202.4

주: 1) MTI 2단위, 금액순 상위 10품목.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표 4-3. 對우즈베키스탄 품목별 수입내역(2005년 1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 품목	2003년		2004년		2005년 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농산물	49,960	-27.2	48,509	-2.9	1,975	-22.4
2	섬유사	10,217	-33	8,701	-14.8	874	296.2
3	직물	1,994	-72.3	3,143	57.7	400	520.6
4	약기	-	-	4	-	14	-
5	산업용전자제품	192	95.7	137	-28.7	11	-
6	인쇄물	32	51.6	327	911.4	10	-
7	가죽 및 모피류	83	-79.9	6	-93.3	7	-
8	축산물	652	35.1	89	-86.4	4	44.4
9	섬유제품	113	1,015.7	206	83.1	0	-99.9
	총계	78,957	-18.4	76,945	-2.5	3,296	10.3

주: 1) MTI 2단위, 금액순 상위 9품목.

2)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3.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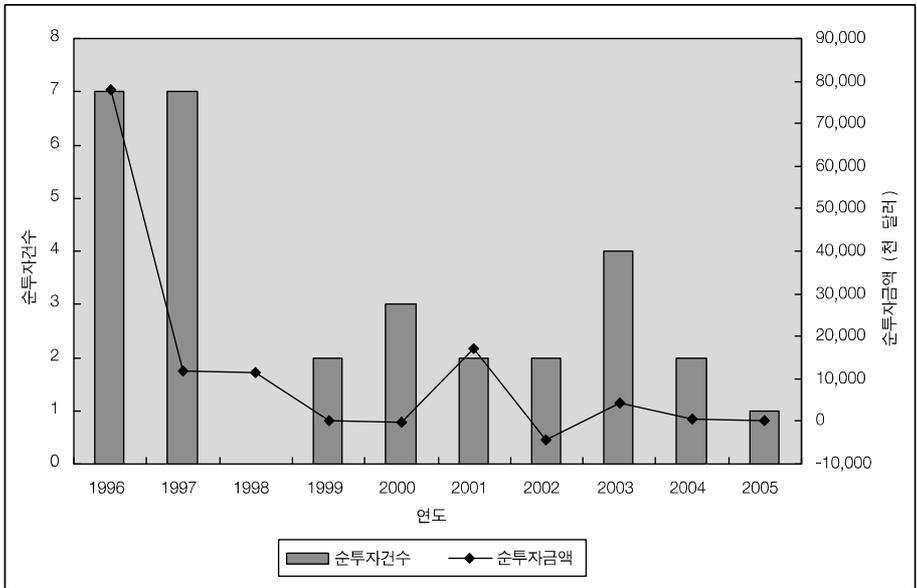
한국의 對CIS 투자는 1990년대 한국기업이 활발히 해외진출을 추진하면서 확대되었다. 1990년 한국의 對CIS 투자가 총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이후 5%를 웃돌고 있다. 對CIS 투자의 건당 규모는 투자가 활발하던 1990년대 중반에는 한때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건당 금액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1998년에는 순투자건수가 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4년 누적 잔존금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는 2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약 1억 9,600만을 기록한 對러시아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다. 1998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투자는 1억 1천만 달러였으나 1999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2001년 투자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 투자 활동은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6,300만 달러, -47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현지의 투자여건에 따라 투자와 회수가 지나치게 유동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CIS내 한국기업의 주요 진출지역에서 나타나는 연간 현지 투자규모의 감소는 2000년대에 들어서 발생한 보편적인 현상이며, 한국기업의 관심이 저하되고 아직 현지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CIS 주요 지역에서 투자위축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 의하면 투자진출시 원리금 송금은 물론 원자재 수입용 외환의 환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가동 중단을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외환규제와 함께 수입허가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통관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합작형태로 진출해 있는 많은 외국투자자가 지적하는 어려움이다.

금액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투자는 제조업에서 이루어져, 전체 총투자 누계금액의 96%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도소매업, 통신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주요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의 투자가 대우그룹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1993년 대우자동차(1억 달러), 1993년 대우전자가전제조(500만 달러), 1995년 대우통신(약 260만 달러), 1996년 대우직물제조(500만 달러), 1997년 이동통신(180만 달러), 대우호텔건설(660만 달러) 등이 대우그룹에서 투자한 부문이다. 그밖에 갑을방적의 원면가공 공장 및 여러 중소 봉제업체, 양파망공장, 감초공장, 고춧가루공장 등 중소형 투자진출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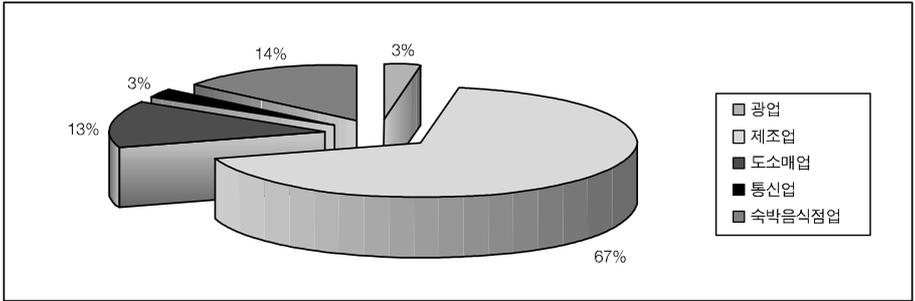
그림 4-2.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추이



주: 2005년은 1월 말까지의 통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http://www.koreaexim.go.kr))

그림 4-3. 업종별 對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 내역(2004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5. 2),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표 4-4. 對우즈베키스탄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 현황

(2004년 6월 말 기준)

투자기업	현지법인	업종	품목	투자비율	투자잔액
대우자동차	UZ-Daewoo AUTO	제조업	자동차	50	100,000
대우인터내셔널	Daewoo-TASHKENT	숙박음식업	호텔/사무실	60	6,602
	Daewoo Central Paging	통신업	이동통신	100	1,800
	Daewoo Textile	제조업	면사/직물	100	15,000
대우일렉트로닉스	UZ-Daewoo Electronics	"	가전제품	50	4,000
갑을방직	Kabool UZBEK	"	면사/면직물	70	74,000
대우유니텔	Aloka Daewoo	"	교환기	51	2,599
동주산업	UZ-Dong Ju Paint	"	도료	50	600
고려	UZ-Tong Heung	"	자동차 시트	50	3,210
세명금속공업	UZ-Saemyung	"	F-Tank	50	2,400
현대모비스	HMMFZE	"	자동차부품	100	3,000
삼성전자	USE	"	가전제품	80	700
동서기연	UZ-Dong Yang	"	승용차용 도어트림	60	3,403
기타	23건				11,046
합계	36건				228,46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4. 10), 『우즈베키스탄』.

## 4. 경제협력 증진방안

### 가. 정책과제

1999년 이후 러시아경제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CIS 국가들이 경제회복을 보이자 최근 들어 한국기업들의 CIS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시장경제로의 체제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경제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경제예측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향후 2~3년간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이 되어왔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관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을 주요 경제협력대상국가로 보고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내 규모가 큰 개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양국간 경제관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및 에너지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투자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즈베키스탄간 경제관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한국의 CIS내 주요 진출지역이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되살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려면 우선 현지 무역제도의 미비에 따른 문제와 현지 투자상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등 전반적인 진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입은 면화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지 작황에 따라 수입규모 변동이 심한 편이며,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은 주로 한국기업이 현지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수출실적은 현지 투자계획과 생산여건 변화 및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정책에 따라 좌우되어왔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의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현지 수입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외환거래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현지 투자업체들이 부품조달을 위한 수입에 애로를 겪고 일부는 투자철회까지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교역구조로 인해 현지 및 한국내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역확대와 상품구조의 다양화를 이룸으로써 교역확대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는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제조업 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아직 업종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소 설립자본금의 액수를 기존의 3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對중아시아 투자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형 투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형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개척에서 최대 애로사항은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파트너 및 공급할 제품의 선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우즈베키스탄어 양국 언어로 동시에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면 커다란 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예컨대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국경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미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면서

양국 언어에 능통한 고려인 동포들을 활용한다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개발형 투자와 인프라 구축 투자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제는 물론이고 관·산·학·연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시장원리보다 정부의 통제에 의해 작동되므로, 투자진출시에 민간부문보다는 투자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여 성공한 국가들은 대체로 정부 주도로 교류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통상외교체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어로점을 적극 개선해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구성한 양국간 경제공동위원회<sup>27)</sup>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우즈베키스탄 경제공동위원회는 1994년 10월 최초로 열린 이래 지금까지 총 세 차례 개최되었다. 경제공동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양국간 정보교환의 장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현지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sup>28)</sup>을 지속적으로 타진할 수 있다. 또한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의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공통의 이익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 對개도국 지원을 점차 확대해야 할 입장

27) 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CIS 국가와 무역공동위원회 내지는 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여 왔다. 한국정부는 2000년 8월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과의 제3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아시아나항공 환전대기금의 유류대금 지불 허용, 우리 지상사에 대한 2년 복수비자 발급 합의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한 바 있다.

28)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 에너지, 생산설비, SOC 및 통신 관련 설비, 농업지원 및 소비재 관련 설비,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바,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과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경우 향후 풍부한 원자재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별로 성과가 없는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투자증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근래에 들어 우리 정부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사업<sup>30)</sup>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1999년 10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요청으로 EDCF 자금을 제공했다. 이 자금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두 건의 사업에 대해 총 520억 원의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2001년 12월 말까지 48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이미 실행되었다.<sup>31)</sup>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및 건설분야 직업교육을 위한 최신장비를 구비하도록 2001년에 3,5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2,7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향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를 통해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EDCF가 단순한 지원으로 끝나기보다는 이 지역의 시장진출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주

29)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모범적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은 일찌감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국제공항 개보수, 철도 및 도로의 현대화사업에 엔(Yen)차관을 공여하였다. 또한 주요 에너지개발 사업에는 舊 일본수출입은행(現 국제협력은행)의 융자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일본기업들이 중앙아시아의 주요 인프라구축사업과 자원개발사업에 광범위하게 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본은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지원하여 경제적 구조와 환경이 정착되면 당사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30) 1987년에 설립된 EDCF는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개도국에 장기저금리의 현물차관을 제공하는 국제차관사업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의 참여를 도모하여 국가간 경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31) 이는 같은 기간까지 집행된 전체 EDCF 사업 총액의 6%에 해당하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CIS 지역내 국가들에 대해 실시된 EDCF 사업(각각 약 160억 원)보다 높은 액수이다.

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EDCF를 통한 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현지에 통신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바 있으며, 한국산 장비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속적인 경제교류와 자금지원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시장잠재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나. 유망 협력분야

### 1) 에너지 및 운송분야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은 자원의 자급자족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수출할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자원개발노력이 잠재적 투자국에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내륙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자원 개발 외에도 운송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력은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석유가스부문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러시아 최대 가스 생산회사인 가즈프롬(Gazprom)은 2004년 4월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회사 우즈베크네프테가즈(Uzbekneftegaz)와 15년간 샤흐파키티(Shakhpakty)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생산물분배협정(PSA)을 체결하는 등 우즈베키스탄 가스전 개발에 향후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루코일(LUKoil)社 역시 같은해 6월 카우작샤디(Khauzak-Shady), 칸뎀(Kandym)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35년간 PSA를 체결하고 2007년부터 가스를 생산한다는 계획인바, 이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운송 파이프라인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을 감안하여 1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

국영석유회사(CNPC)와 우즈베크네프테가즈社도 2004년 6월에 석유 및 가스 부문 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기반시설인 항공, 철도, 통신분야 등에서도 현재 외국기업들과 합작으로 현대화에 착수하고 있다.

러시아 시베리아 및 사할린의 석유·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우리 한국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더 늦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송 인프라의 경우 세계 5대 고속철 기술보유국이자 우수한 통신기술을 가진 우리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이 분야에서 협력할 경우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재단(KOICA)에서 집행하는 ODA 자금 가운데 개도국의 철도, 통신 등 인프라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자동차부품 생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우자동차 조립생산대수를 2004년에 6만 대, 2005년에는 10만 대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조립회사인 우즈-대우자동차의 조립생산능력은 연간 약 20만 대 정도여서 향후 몇 년간 조립생산대수를 늘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율은 현재 30% 정도인데 앞으로 70%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부품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까닭에 운송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또 물류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서 인건비가 중국의 50%에 불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쟁국인 카자흐스탄에 비해서도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 3) 가전제품 조립생산

우즈베키스탄은 가전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우즈베크인들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이 제품의 판매고가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경우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아직까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과실송금과 달러화 환전문제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까다로운 통제사항이 있긴 하지만, 투자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사전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문서로 보장받고 사업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즈베키스탄은 투자금액이 2천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내각과 직접 협상해 추가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시 이러한 사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 4) 섬유직물 제조업

우즈베키스탄은 원면생산에서 세계 5위, 수출에서는 세계 2위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120만 톤의 원면을 수확해 100만 톤을 수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략적으로 면화 재배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봉제산업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한 민영화, 외국인투자, 민간투자 유치를 가속화하고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섬유산업이 아직까지 발전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발전잠재력이 높고 관련 섬유기계 수입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sup>32)</sup>

32) 우즈베키스탄은 노후화된 섬유생산 기계설비 및 부품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였으며, 이 분야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섬유직물분야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은 갑을방직, 대우텍스타일, 신동, 시로, 동산의류, 제이텍스 등이 있다. 최근 한국의 면방직업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워크아웃 중인 갑을방직의 ‘우즈벡컴퍼니 2공장’ 인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한국 섬유업체들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분야에 종사하는 터키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04년도에만 약 5개의 기업이 비교적 큰 규모로 진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실업률이 높아 현지 인력채용이 용이한데다 인건비, 전력비용도 저렴해서 상당한 투자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타슈켄트 인근에 20만 평 규모의 ‘한국섬유공단’ 건설에 착수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장부지, 건물 등을 무상 제공하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모든 수출품에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파격적 투자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국내 사양산업인 섬유직물제조산업이 머지않아 중앙아시아에서 제2의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박상남. 2004.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복귀」. 『중동연구』, 제23권 2호.
- 박상남. 2004. 「중국의 서부전략과 중앙아시아」. 『국제지역연구』, 제8권 4호.
- 송기재 外. 2001. 10. 『우리기업의 對CIS 진출확대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 정여친·최승희·한정숙. 1998. 『중·동구 및 CIS지역의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정책연구 98-19.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05. KOTIS(<http://kotis.kita.net>).
- 한국수출입은행. 2004. 『우즈베키스탄』. Country Report 04-4.
- 한국수출입은행. 2005.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 [영문자료]

- CIS Statistical Committee(<http://cisstat.com>).
- Dmitry Trofimov. 2003.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Central Asia: problems, prospects, and interest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1, pp. 72-82.
-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04. *Country Report: Uzbekistan*. (December)
- \_\_\_\_\_. 2005a. *Country Profile 2005: Uzbekistan*.
- \_\_\_\_\_. 2005b. *Country Report: Uzbekistan*. (March)
- Global Insight. 2004. *PlanEcon Review and Outlook- the Former Soviet Republics*. (September)
- Gregory Gleason. 2001. "Foreign policy and domestic reform in Central Asia." *Central Asian Survey*, Vol. 20, No. 2, pp. 167-182.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The Curse of Cotton: Central Asia's Destructive Monoculture."
- Jan M Kalicki and Eugene K. Lawson eds. 2003. *Russian-Eurasian Renaissance?: U.S. trade and investment in Russia and Eurasia*. Washington, D. 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M. S. Gafarly and V. F. Rass. "The Preservation of the State's Dominant Positions in the Economy." In Alexei Vassiliev ed. *Central Asia: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in the Post-Soviet*. Era: Saqi Books.
- Nurullo A. Khalmurzaev. 200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transition economy of Uzbekistan: conditions and perspectives." *Central Asian Survey*, Vol. 19, No. 2, pp. 281-296.
- Petroleum Economists. *Press Reports*.
- Resul Yalsin. 2002. *The Rebirth of Uzbekista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n the Post-Soviet*. Era: Ithaca Press.
- Uzbekistan Economic Trends. *Press Reports*.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 Ашимбаев М. С. и Лаумулин М. Т. 2002.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до и после 11 сентября: геополитик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Алматы.
- Жуков С. 2004. "Киргизия и Узбекистан: шок против градуализма."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 6.

---

## 부록 1. 우즈베키스탄 국가 개황

- 국 명: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 면 적: 44만 7,400km<sup>2</sup> (한반도의 약 2배)
- 인 구: 2,600만 명(2004년 기준)
  - 우즈베크인 71.4%, 러시아인 6.3%, 타지크인 4.7%, 카자크인 3.9%, 타타르인 2.4%, 고려인 0.8%(약 20만 명), 유대인 0.3%
  - 연 인구증가율: 3.6%
- 종 교: 이슬람교 88%(수니파), 그리스정교 9%, 기타 3%
- 언 어: 우즈베크어(터키계 언어)를 공용어로 하나, 러시아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됨.
- 수 도: 타슈켄트(인구: 250만 명)
- 행정부: 대통령제(임기 7년)
  - 대통령: Karimov Islam Abduganievich
  - 총 리: Mirziyaev Shavkat Miromonovich
  - 외무장관: Safaev Sodyq
- 입법부(Supreme Council; Oliy Majlis): 양원제
  - 의장: Khalilov Erkin Khamdamovich
- 정당제도: 복수정당제
  - People's Democratic Party(국민민주당, 구공산당), 'Erk'(자유당), Liberal Democratic Party(자유민주당 등), 자유민주당이 다수당 차지
- 행정조직: 12개 지방 및 1개 자치 공화국(Karakalpakstan)
  - 주요도시: 사마르칸드(37만 명), 나망간(33만 명), 안디잔(30만 명), 부하라(23만 명), 페르가나(20만 명)
- 기 후: 고온 건조한 대륙성 기후

- 여름 최고기온: 42℃ 평균기온: 25~30℃
- 겨울 최저기온: -10℃ 평균기온: 2.8℃
- 강우량

봄: 30~50%, 여름: 1~6%, 가을: 4~44%, 겨울: 25~40%

- 시 차: 타슈켄트-서울간 4시간 차이, 타슈켄트-모스크바간 2시간 차이

---

## 부록 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지역협력기구 참여 현황

###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 ○ 발전과정

- 1991. 12: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민스크 조약 체결로 구소련 해체
- 1999. 6: CIS 국가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 개정의정서(1999. 4)에 의거 경제협의회 신설 (우즈베키스탄 불참)
- 2001. 5: 1999년 2월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간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을 바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 Economic Community: EurAsEC)’ 창설
- 2003. 9: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 공동경제권 (Common Economic Space) 창설 합의(우크라이나, 알타)

- 기구구조: 경제수반협의회 설치(연 2회 이상 개최), 고위급위원회 사무국 설치(벨로루시), 각 국가 의회간 협의회 개최

### 공동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 설립연도: 2003년(1992년 공동안보조약에 기반)
- 회원국: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설립목적: 테러 방지, 마약밀수 수사 공조

- 기구구조: 비상병력 본부 (키르기스스탄, 칸트)

□ **중앙아시아협력기구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CACO)**

- 회원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 발전과정
  - 1990: 중앙아시아 5개국 경제통합조약 서명
  - 1994: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지역연합 (Central Asian Regional Union: CARU) 설립
  - 1996: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UN 지원하에 센트라바트 평화유지군 창설
  - 1997: 러시아, 고위급위원회에 공식감사기구 설치
  - 1998: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 CAEC)로 명칭 변경, 투르크메니스탄 가입
  - 2000. 4: 10년 기한의 안보조약 체결
  - 2002. 1: CACO 설립(러시아 2004년 가입)
- 기구 구조: 대통령과 총리로 구성된 국가간 의회, 총리간 의회, 외무부장관간 의회, 국방장관간 의회 등 총 4개 기관, 상설행정기구인 고위급위원회(이슬폴콤)

□ **GUUAM(Georgia, Ukraine, Uzbekistan, Azerbaijan, Moldova) 연합**

- 설립연도: 1997년(우즈베키스탄 1999년 가입)
- 목적: 러시아 지역패권을 우려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CIS 소속 5개국이 미국 주도하에 설립,

카스피해 에너지 개발과 운송 프로젝트에서 러시아 배제, 동·서 교류의 활성화, 나토와의 공조, 대테러 협력 등을 목표

- 기구구조: 자문역할, 비정기 연례회의 개최, 상설기구 부재
- 2000년에 5개국 정상 연례회의 정기화 추진 합의

#### □ 이슬람협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 설립연도: 1969년(모로코)
- 회원국: 57개국(CIS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가입)
- 목적: 이슬람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분야 협력
- 주요기관: 이슬람 최고협의회(3년에 1회 개최)

#### □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 회원국: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총 6개국
- 발전과정
  - 1989. 5: 중·소 관계 정상화 이후 중·소간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 구축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립
  - 1996. 4: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 정상회의 개최, ‘상하이-5’ 출범,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협정’, ‘국경지역 군사력 감축협정’ 체결
  - 1997. 4: 제2차 정상회담(러시아, 모스크바)
  - 1998. 7: 제3차 정상회담(카자흐스탄, 알마티)
  - 1999. 8: 제4차 정상회담(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 2000: 제5차 정상회담(타지키스탄, 두산베)
- 2001. 6: 6차 정상회담(중국, 상하이) 개최, ‘상하이협력기구’로 재출범, 우즈베키스탄 가입, 조정이사회 설립으로 상설화 기반 마련 및 헌장 작성 추진, 매년 1회 정상회의, 총리 및 각 부처 장관회의 개최, 전문가 연구팀 설치 추진 합의
- 2004. 6: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베이징 소재 사무국 및 타슈켄트 소재 대테러센터 직원의 특권, 면제에 관한 협약 체결, 옵서버 지위 부여에 관한 규정 채택, 국제기구로서의 법적인 기반 조성

---

## 부록 3.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개황

□ 국교수립: 1992. 1. 29(북한 1992. 2. 7)

□ 고위급 인사교류

- 1992. 6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1994 김영삼 대통령 방우
- 1995. 2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1997. 4 할릴로프 국회의장 방한
- 1999. 8 아지모프 재무장관 방한
- 1999. 10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2000. 6 김용준 헌법 재판소장 방우
- 2000. 9 최종영 대법원장 방우
- 2000. 10 김호식 관세청장 방우
- 2001. 1 차봉근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 방우
- 2001. 1 이브라지모프 노동부 장관 방한
- 2001. 3 허경만 전남도지사 방우
- 2001. 3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단 방우
- 2001. 5 카밀로프 관세청장 방한
- 2001. 8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방우
- 2001. 10 네마토프 외무차관 방한
- 2002. 11 아비도프 노동부장관 방한
- 2003. 2 심상명 법무장관 방우
- 2003. 4 김용덕 관세청장 방우

- 2003. 5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방우
  - 2003. 6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 방우
  - 2003. 11 카디로프 검찰총장 방한
  - 2003. 12 가니예프 부총리
  - 2004. 7 KOICA 김석현 총재 방우
  - 2004. 10 송광수 검찰총장 방우
- **주요 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이상 1992), 항공협정, 무역협정(이상 1994), 이중과세방지협정(1998), 세관협력협정(1999),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2003)
- **교역(2004년):** 4억 3,600만 달러(수출 3억 5,900만 달러, 수입 7,700만 달러)
- 주요 수출품목: 수송기계, 일반기계, 플라스틱 등
  - 주요 수입품목: 원면, 곡물 등
- **외국인직접투자(2004년 말 잔존):** 투자신고건수(55건, 3억 512만 달러), 순투자건수(37건, 2억 2,864만 달러)

---

## Executive Summary

# The Current Status of Uzbekistan Economy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Jae-Young Lee, Hyeon-Joon Shin and Sun-Young Kim

The strategic importance of Central Asia has grown significantly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Central Asia is no longer a peripheral part of the international arena, but instead occupies a strategic core of the geopolitical system. Uzbekistan, situated in the very heart of Central Asia, not only serves as an important military or political partner but also as a potential export market and energy supplier. Therefore we should review the possibility of future cooperation with Uzbekistan.

Politically, under President Karimov's authoritarian regime democracy has not flourished, and censorship flourishes in many aspects of Uzbekistan society. However the president Karimov's firm rule means that civil revolutions in other former Soviet countries will not spread to Uzbekistan.

Different from other CIS countries, Uzbekistan's economic policy has been focusing on gradual transformation toward a market economy by means of centralized government policy. However, due to lagging economic reform and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Uzbekistan does not have a stellar economic record. It is expected that Uzbekistan will implement more active principles of a

---

market economy with less government intervention.

Recently, Korean enterprises have paid more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entering CIS market, especially Uzbekistan as a bridgehead to Central Asian market.

Several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foster Korea-Uzbekistan economic cooperation.

First of all, the general environment between two countries should be improved to promote trade system and investment.

Investment b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ME) should be encouraged except for large scal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nvestment projects. To provide information for SMEs, who intend to invest in Uzbekistan, Korea could utilize bilingual Korean emigrants in establishing business information websites.

Since political interests play a more important role than market principles in Uzbekistan investment environment, Uzbekistan needs to be diligent in their investment environment. First, Korea can utilize intergovernmental policy coordination commission and joint economic commission to eliminate obstacles to investment. Korea can also support government projects in energy transportation, railroad, and highway construction since Korea should increase ODA to developing countries as a member country of OECD organization.

Finally, we need to emphasize the role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industry and academia for fostering investment and futur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 KIEP 발간자료목록(2000~05. 5)

##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吳東胤 · 林泓修
02-02	일본 수입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崔允靜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裴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02-08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와 示唆点 - 韓 · 日의 對ASEAN 貿易을 중심으로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哲元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權耿德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朴馥永 · 裴嬉娟
04-01	南亞共 恊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朴英鎬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 · 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哲元
04-03	리비아 경제체제 해체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朴英鎬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朴映坤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韓 · 英 경제협력의 과제	金興鍾 · 金均泰
04-06	일본 · 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權耿德 · 金恩志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李哲元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 지역연구회시리즈

- |       |                                                                                                                  |                |
|-------|------------------------------------------------------------------------------------------------------------------|----------------|
| 00-01 |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 鄭銀淑            |
| 00-02 |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 吳勇錫            |
| 00-03 |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元容杰            |
| 00-04 |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 李榮洙 · 徐煥周      |
| 00-05 | 日 · 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 申志鎬            |
| 00-06 |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朴濟勳            |
| 00-07 |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화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 蔡熙律            |
| 00-08 |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 張善德            |
| 00-09 |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 金正湜            |
| 00-10 |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 嚴久鎬            |
| 00-11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 楊平燮            |
| 00-12 |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 金讚沆            |
| 00-13 |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 金昌男 · 千寅鎬      |
| 00-14 |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 高在模 · 全載旭      |
| 00-15 |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 辛源龍            |
| 00-16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尹玄德            |
| 00-17 | 경제전환기 중 · 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李殷九            |
| 01-01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
| 01-02 |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
| 01-03 |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
| 01-04 |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
| 01-05 |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 · 李滿基      |
| 01-06 |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 · 李光勛      |
| 01-07 |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
| 02-01 |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 李忠彥            |
| 02-02 |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 程勳             |
| 02-03 |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金鍊鐵            |
| 02-04 |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br>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gional Development | Chang Woon Nam |
| 03-01 |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 吳明錫            |
| 03-02 |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검토: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                                                                             | 趙顯竣 外          |
| 04-01 |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 金恩慶 · 金興鍾      |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 · 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 · 金寅培 · 辛仁錫
01-04	韓 · 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 · 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 · 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 · 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 · 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 · 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 · 환경 · 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 · 徐暢培
02-01	DDA 총점검-2002	崔洛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林頌洙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 · 시청각 ·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 高俊誠 · 具文謨 · 朴淳讚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崔洛均 · 鄭在皓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姜文盛 · 魯在峯 · 李鍾華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尹美京 · 崔允僖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南相烈 · 權栗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崔洛均 · 朴淳讚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姜三模 · 王允鍾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姜文盛 · 羅秀燁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尹德龍 · 鄭在植 · 曹琮和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李彰洙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金良姬 · 趙炳澤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池晚洙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權栗 · 金玠慶
02-16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趙顯竣
02-17	1990년대 이후 한·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梁俊哲 · 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尹德龍 · 鄭衡坤 · 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李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朴大權 · 楊斗鏞 · 吳奎澤 · 金恩京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李鴻培 · 岡本 信廣
02-26	북한경제 백서	趙明哲  외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申寬浩 · 王允鍾 · 李鍾和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姜三模 · 朱尙榮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洪裕洙 · 李彰洙 · 姜丁實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安炯徒 外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池晚洙 · 李 榮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洪裕洙 · 池晚洙 · 韓正和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과금영향	鄭仁敎 · 吳東胤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權 栗 · 鄭仁敎 · 朴仁元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李鴻培 · 金良姬 · 金恩志 · 程 勳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曹琮和 · 李炯根
03-11	미주자유무역시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姜文盛 · 金元鎬 · 朴淳讚 · 全鍾奎 · 權奇洙 · 金眞梧 · 羅秀燁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安炯徒 · 尹德龍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趙明哲 外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趙明哲 外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趙明哲
03-16	DDA 중간점검 - 2003	崔洛均 外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宋有哲 外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金準東·鄭永虎·崔秉浩·安德宣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崔洛均·鄭在皓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姜文盛·朴淳讚·李彰洙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尹美京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金準東·金鍾一·姜俊求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鄭仁教 外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姜文盛·朴淳讚·宋有哲·尹美京·李根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경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楊斗鏞 外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申寬浩·楊斗鏞·王允鍾·李鍾和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鄭仁教 外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의 시사점	金元鎬
04-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李洪植 外
04-0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南英淑 外
04-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方浩慶 外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崔洛均
04-06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 논의를 중심으로	尹昌仁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李彰洙
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尹美京·尹昌仁·李相承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楊斗鏞 外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金興鍾 外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추진전략	鄭仁教 外
04-1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朴淳讚·姜文盛
04-13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 및 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李鴻培 外
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池晚洙 外
04-15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洪灝杓 外
04-16	동북아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安炯徒·吳龍協

- 
- 04-17 동북아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田一秀 · 洪錫晉
  -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李相學
  - 04-19 동북아 경제협력: NEADB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李炯根
-

## 李載榮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美 하버드대학교 및 미시간대학교 방문학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現, E-mail: ljy@kiep.go.kr)

著書 및 論文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 對APEC정책』(공저, 1998)

『한반도와 러시아: 변화와 발전의 정치경제』(공저, 2003)

“Iron Silkroad: Prospects for a Landbridge through Russia from Korea to Europe”  
(*Post-Soviet Affairs*, 2004) 외

## 申鉉俊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문학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국제지역학 전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원(現, E-mail: hjshin@kiep.go.kr)

著書 및 論文

“An Empirical Study on Dual Pricing and Implicit Subsidies in Natural Gas Sector in Russia”(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5. 1)

「러시아 연금제도의 개혁과 과제」(『KIEP 세계경제』, 2005. 3)

「국가신용등급 분석을 통한 BRICs 경제진단」(『KIEP 세계경제』, 2005. 4) 외

## 金善英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문학사

美 노스웨스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원(現, E-mail: sykim@kiep.go.kr)

지역리포트 05-02

---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

2005년 5월 3일 인쇄

2005년 5월 6일 발행

---

발행인 **李景台**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6079-6 94320

정가 5,000원

89-322-6017-6 (세트)

# The Current Status of Uzbekistan Economy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Jae-Young Lee, Hyeon-Joon Shin and Sun-Young Kim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대륙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경제적으로 높은 잠재적 유효수요를 가진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이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잠재력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새로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시장원리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운영되므로, 양국간 경제협력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경제공동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무역제도와 투자환경의 개선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협력의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은 중소기업형 투자와 자원개발 및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주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官·産·學·研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정가 5,000원